

# 미·이란, 물밑 대화 진행중...2차 대면협상 가능성 준비

### '2주 휴전' 만료 전 협상 거론

#### 이슬라마바드·제네바 등 물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종전 협상 결렬 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타협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N 등 외신들은 미국 당국자와 협상 내용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이 이날 아침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CNN은 특히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두번째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휴전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지역 중재자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2차 대면 협상을 위

한 일정과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이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신속하게 조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슬라마바드와 스위스 제네바 등이 잠재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이슬라마바드와 다른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여전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동 주제 한 외교관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를 떠난 이후에도 중재자들과 미국 간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여전히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문제를 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이슬라마바드 협상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로이터는 미국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합의를 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란 희생자 초상화 1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주거 건물 인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 희생자들의 초상화가 전시돼 있다. /UPI=연합뉴스

## 트럼프, 2기 첫 주한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지명

### 공화당 출신 前 하원의원

### 1년 넘게 이어진 공백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트럼프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인준 절차가 완료돼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틸 전 의원은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의 정계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스틸 전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픈시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나 2024년 11월 선거에서 600여표 차이로 석패해 낙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직전인 2024년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틸 전 의원을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세계 최고령' 베를린 고릴라 69살 생일잔치

세계 최고령으로 추정되는 암컷 고릴라 파투(사진가 13일(현지시간) 69살 생일을 맞았다고 독일 일간 베를린모르겐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베를린동물원은 이날 당근과 방울토마토·사탕무·샐러드 등으로 선물 바구니를 마련해 파투의 생일 잔치를 열었다.

사육사 크리스티안 오스트는 파투가 관람객 앞에서 생일상을 받아드는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차 한잔을 마시는 게 일과 중 하나"라며 과일 차를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동물원 측은 비만과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이 많은 과일 종류는 이날 생일상에서 제외했다.

파투는 세계 최고령 고릴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고릴라의 수명은 35~45년으로, 파투는 인간으로 치면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는 토르스텐 쇠네(63)는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노부인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투는 이미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흐릿하며 관절염으로 움직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노화가 뚜렷하다.

사육사 제니퍼 한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상태가 들쭉날쭉하다"며 "7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 일자위대원, 자민당 행사서 기미가요 제창... '정치중립위반'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역 자위대원이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관에 해당하는 계급)가 무대에 올라 일본 국가를 불렀다.

쓰구미 3등육조는 일본 국립음악대학 등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육상 자위대에 처음 도입된 성악 요원으로 2014년 입대했다.

그가 자위대 제복을 착용한 채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이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누리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위대법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

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는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를 개헌의 주요 의제로도 삼고 있다.

자위대원의 국가 제창에 비판이 쏟아지자 스즈키 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가수)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자위대 역시 교도통신 취재에 "국가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건도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